

한국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활동 첫날 생존자 4명 구조

70대 남성 이어 일가족 3명 추가 구조...사망자 4명도 확인 17일까지 수색·구조 활동...현지 상황 따라 2차 파견 검토

튀르키예 강진 피해 지역으로 급파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9일 새벽 5시(이하 현지시간) 구호 활동에 돌입해 생존자 1명을 구조한데 이어 일가족 3명을 추가로 구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긴급구호대는 하타이주 안타키아 고등학교 등에서 구호 활동을 시작한 지 1시간 반쯤 지난 오전 6시 37분께 70대 중반 남성 1명을 구조했다.

이어 긴급구호대는 오전 10시에 안타키아 주거지의 무너진 5층 건물 사이에서 40세 마흔댓 씨와 2세 여아 루즈 양을 구조한데 이어 아내인 라와(35) 씨도 구출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돌쟁이 아기는 구조했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지 안타키아 지방정부가 "한국 긴급구호대가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둬서 아주 기쁘다. 한국 긴급구호대의 활동을 통해 생존자가 계속 나왔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구호대는 생존자를 구출한 곳에서 사망자 4명도 추가로 확인했다.

한국 긴급구호대는 튀르키예 측 요청에 따라 하타이주 안타키아를 구조 활동 지역으로 전남 선정했으며, 이 지역 내 셸림 아나톨루 고등학교에 베이 스킴프를 설치했다.

정부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인 이번 긴급구호대는 외교부 1명, 국방부 49명, 소방청 62명, KOICA 6명 등 총 11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튀르키예 측 요청에 따라 탐색 구조팀 중심으로 꾸려졌다.

한국 긴급구호대는 17일까지 열흘간 긴급 수색 구조활동을 벌일 예정으로, 정부는 2차 구호대 파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한국 국민의 피해 상황은 없다. 더불어 튀르키예(타키)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 후 나올까인 9일(현지시간) 사망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광범위한 데 비해 구조 여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희생자 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AFP·로이터·AP·신화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튀르키예 사망자 수가 1만2391명으로 집계됐다. 시리아의 경우 당국과 반군 측 구호대 '하얀 헬멧' 설비를 종합하면 전날 저녁까지 약 300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치면 양국의 희생자 수는 1만5000명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2015년 네팔 대지진(사망자 8831명)의 피해 규모도 이미 넘어섰다.

인명피해가 더 늘어난다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사망자 1만8500명) 때 사망자 수까지 넘을 가능성도 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은 전날 트위터에서 "카흐만마라수를 강타한 최초 지진 이후 700번의 여진이 잇따랐다"며 총 6만명 이상의 인력이 피해지역에 파견돼 구조 및 지원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국

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국제기구들은 물론,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도 인도적 지원에는 한 마음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구호대를 보냈다. 그러나 자연재해 발생 후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다가와 희망의 불씨도 점점 희미해지는 것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오랜 내전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인 시리아의 경우 피해가 집중된 북서부 지역이 반군의 통제 하에 있는 탓에 구호물자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CNN은 튀르키예에만 총 70개국과 14개 국제기구가 지원에 나섰다, 시리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지원 제공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시리아에 직접 구호물자를 보낸 것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이란, 리비아, 이집트, 알제리, 인도 등 주변 소수 국가에 불과하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생존자가 지금 끔찍한 여건에서 아예 머물고 있다"며 "수색·구조작업과 같은 속도로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이 2차 재난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한국에 거주하는 튀르키예인들이 9일 오후 인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고향에 보낼 구호품을 옮긴 뒤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역사·문화 살아 숨쉬는 전남으로 오세요”

전남도, 2월 관광지 추천...도립미술관·지리산역사문화관 등

전남도가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여행 전남도'라는 주제로 광양 도립미술관,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 나주 금성관, 완도 세연정을 2월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

광양 전남도립미술관은 옛 광양역 자리에 건립된 현대미술관이다. 전남 출신 작가의 작품과 전남의 아름다움 풍경과 역사성을 담은 작품을 주제로 수집해 전남의 예술성을 알리고 해외 현대미술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적 미술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은 지리산의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지리산의 역사, 문화, 설화 등을 관람객에게 매력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전시로 풍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도 운영한다. 강따라(기획전시동), 산따라(상설전시동), 길따라(체험전시동) 총 3개 테마로 구성됐다.

나주 금성관은 조선시대 외국 사신이나 정부 고관의 행차가 있을 때 연회를 열었던 객사다.

조선시대 객사 건축물 중 규모가 가장 웅장해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또한 임진왜란 때는 김전일의 의병장의 출병식이 있었던 곳으로 나주인들의 의향정신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완도 세연정은 조선시대 3대 별서정원 중 하나다. 조선 중기 문신이자 시인 고산 윤선도가 보길도의 풍광에 반해 정착하며 만든 정원으로 수목과 연못의 조화가 아름다운 곳이다. 이듬해 그대로 물에 씻은 듯 깨끗하고 단정한 경관에서 한국 정원의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다. 세연정이 위치한 보길도는 고산 윤선도의 숨결이 그대로 담겨있는 곳이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곳에서 조선 시가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어부사기' 등을 남겼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은 수많은 시인, 목객과 명장을 배출한 역사 깊은 예술의 고장"이라며 "전남의 역사와 예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2월 추천관광지에서 '여행 남도'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형제국가' 튀르키예에 10만달러 지원

“조속한 피해 복구 힘 보탬 때...희생자에 깊은 애도”

전남도가 '형제국가' 튀르키예의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해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튀르키예는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워 피를 나눈 형제국가이다.

김영록 지사는 "튀르키예 지진으로 4만3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6500여 채의 건물이 붕괴하는 등의 엄청난 재난이 발생해 참담하고 안타깝다"며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고 조속히 피해를 복구

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인명 구조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도민들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국내외 재난 시 피해복구를 적극 지원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마스크 18만7000장, 의약품 14만 장, 수술용 가운 600벌, 안면보호구 3만 벌을 전달했다. 또 경북과 강원지역 대형 산불, 광주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 때 성금을 지원해 복구를 도왔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 자치단체 선정

광주시가 입주기업 폐수처리비 감면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 공로로 적극 행정 규제 혁신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광주시 등 지자체의 사례 7건을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광주시와 서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산업단지 입주 초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에 따른 높은 오·폐수처리비는 입

주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인근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기업의 오·폐수처리비와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처리 비용을 하수도 요금단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부서간 협업 및 관련법을 검토해 '광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했고, 이를 통해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이 사례는 적극행정으로 알려져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광주시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영산강 수질개선은 물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광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
하실분. 010-3605-5000

지분, 땅,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주목성 뛰어난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품질 LED플칼라 최고화질

-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충장로 입구 공인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대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발생암매각공고

- 입찰설명·발생통제 매각**
호남고속철도2단계 5공구에서 발생된 토석 약 150,000㎡(자연상태 모암 기준) 단, 현장 사정에 따라 전체 수량이 변경(증·감) 될 수 있음.
구분 단위 토사 총량 연 보충량/경량 합계 비고
수량 ㎡ - - 150,000 150,000 경사경, 무인정, 구로시점
- 현장설명회, 입찰설명회 및 입찰일시(주소: 호남고속철도2단계 5공구 현장사무실)**
가. 현 장 설명 회: 2023년 02월 15일 14:00
나. 입찰등록마감일: 2023년 02월 17일 14:00 까지
다. 개 갈 일 시: 2023년 02월 17일 14:00
라. 낙 찰 지 선 정: 2023년 02월 21일 낙찰자 개별통보
- 입찰방법: 일괄 매각 입찰**
가. 낙찰자 결정: 1㎡당 원석대가 최고가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최고가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운반거리가 가장 가까운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계약대리인의 운반거리 선정 방법에 의함)
*설계운반거리(L=2.9km)를 초과하는 추가운반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추가운반비용에 대한 단가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로 선정함.
나. 입찰 참가 자격에 걸림사항이 있을 시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계약일시 및 연차**
계약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
-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자격의 경우
1) 입찰공고일 현재 골재채취비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산골재채취업 또는 골재선별·파쇄업으로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사업자로서, 현상일 현재 개발행위 준공허가를 득한 반입장을 구비해 상시반입(24시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사업장 관련 인허가 서류를 현장설명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직 당 및 골재 생산시설 위치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생암 처리가 가능한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나. 공통사항
1) 현장설명일 기준으로 세금이 체납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장설명 시 국제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 시 제출한 사업장(아직 당 및 골재 생산시설)은 발파암 반입, 골재생산 등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입찰업체 제출서류(입찰관련 서류는 현장설명회 참석시 제출)**
가. 반입장(골재생산시설 및 야적장) 위치가 명확히 표시된 위치도 1부
나. 골재 선별·파쇄업 사업자 등록증 및 골재 파쇄 신고수리증 1부
다. 법인인입찰보증서 및 사용인감 1부
라. 시국제 납입증명서 1부
마.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및 재직증명서 1부
-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서,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나. 기타 상세한 사항 문의처(현장접수만 가능)
· 매 각 자: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 계약대리인: (주)태양건설 (전남 무안군 정계면 서호로 358)
· 기타 문 의: 시공사 (주)태양건설 061-454-5557
김리단 ㈜케이알티비 061-454-5509

2023년 2월 10일
호남고속철도2단계(고막원~목포) 제5공구 건설공사
계약 대리인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1차)
(채권자 이의 제출 및 주권제출공고)
본 조합원은 2023년 1월 25일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3년 2월 3일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본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면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명진농업조합법인
광주광역시 북구 원용산로 61-4 (월출동)
청산인 정영철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1차)
(채권자 이의 제출 및 주권제출공고)
본 조합원은 2023년 1월 25일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3년 2월 3일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본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면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금성농기계농조합법인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628-6
청산인 최영선

구독문의
신문 220-0551
예향 220-0550